페퍼스, '브라질 리그 득점왕' 리드 잡았다

미국 출신 레프트 공격수…삼수 끝에 1순위로 V리그 입성

여자배구 외국인 선수 드래프트…엘리자벳은 인삼공사로

광주 페퍼저축은행 여자배구단 AI페퍼스가 2022-2023시즌을 함께할 외국인 선수로 미국 국적의 레프트 니아 리드(25·사진)를 지명했다.

광주 페퍼저축은행 여자배구단 AI페퍼스는 28일 서울시 강남구 리베라 호텔에서 열린 2022 한국배구연맹(KOVO) 여자부 외국인 선수 드래프트 구슬 추첨에서 1순위 지명권을 얻어 이번 드래프트 최대어로 꼽히던 리드를 품에 안았다.

선수 지명을 위해 무대에 오른 김형실 페퍼저축은행 감독은 망설이지 않고 리드를 호명했다.

리드는 키 189㎝의 레프트로 2021-2022시즌 브라질 리그 세시 볼 레이 바우르에서 뛰며 득점 1위에 올랐다.

리드는 지난 2020년과 2021년 V리그 드래프트에 도전했으나, 한국 구단의 외면을 받았으나 삼수 끝에 '1순위'의 영예를 누리며 V리그 입성에 성공했다. 리드는 기량이 급격하게 상승했다는 평가를 받았고, 사전 선호도 조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리드는 지명 후 화상 인터뷰에서 "V리그 드래프트에 세 번째 지원해서 마침내 지명받았다"며 "최근 기량이 좋아졌다. 'V리그는 수비가 좋고, 경쟁력이 있는 리그'라고 들었다. 내가 한국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형실 감독은 "1순위를 뽑아 다행이다. 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아픈 데도 없고 성격도 밝다고 한다"라고 리드 영입에 큰 만족감을 드러냈다.

지난 시즌 페퍼저축은행의 창단 첫 시즌을 함께한 외국인선수 엘리자벳은 2순위로 KGC인삼공사의 유니폼을 입게되면서 아쉬운 이별을 하게 됐다.

엘리자벳은 지난 시즌 30경기에 출전, 598득점으로 득점랭킹 6위에 오르며 신생팀 페퍼저축은행의 소중한 3승에 큰 역할을 했다.

김형실 감독은 "엘리자벳도 물론 좋은 선수다. 인성도 좋았고 기억에 남을 선수인데 기복이 심하다"라며 엘리자벳과 재계약을 맺지않고 리드를 지명한 배경을 밝혔다.

앞서 FA로 세터 이고은을 영입한 페퍼저축은행은 이날 드래프트에서 1순위로 리드를 품에 안으며 기분 좋게 새시즌을 준비중인 가운데 지난시즌 성적 7위를 넘어 한층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지 팬들의 기대가 모아진다.

한편 3순위 지명권을 얻은 흥국생명은 지난시즌 KGC인삼공사에서 뛰었던 옐레나(192㎝)를 지명했으며 4순위 IBK기업은행은 아제르바이젠·러시아 국적의 아나스타시야 구르바노바(190㎝)를 5순위 한국도로공사는 카타리나 요비치(191㎝)를 지명했다.

현대건설은 2021-2022시즌 정규리그 1위에 공헌한 야스민(26)과 재계약에 성공했으며 GS칼텍스도 레티치아 모마(29)와 재계약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리드 지명한 김형실 감독 "영상보고 텔레파시 통했어"

AI페퍼스가 결국 1순위로 새 얼굴 니아 리드(26·미국)을 지명했다. 구슬추첨에서 1순위 지명권을 획득할 확률이 24% 로 7개 구단 가운데 가장 높았던 AI페퍼스 김형실〈사진〉 감독은 추첨 직전까지 불안했다고 밝혔다.

2022 KOVO 드래프트에서 니아 리드를 지명한 김형실 감독은 광주일보와 통화에서 "마음속으로 기도를 많이 했다. 종교적인 걸 떠나 불안한 마음에 마인드 컨트롤을 했다"며 "분명 하얀색 공이 나왔는데, 사회자가 빨간공이 나왔다고 해서 놀랐다"며 웃었다.

김 감독은 이어 "에이전트가 보내 준 10명 정도의 선수 영상을 쭉 봤는데, 리드의 플레이 영상을 보면서 '아 이선수구나' 하는 감이 딱 왔다. 한 마디로 텔레파시가 통했다. 에이전트 또한 팀에서 가장 안전한 플레이를 하고 인성이 훌륭한 선수라고 했다"며 "특히 화이팅 넘치는 플레이 스타일과 밝은 얼굴표정이 마음에 들었다"며 지명 배경을 밝혔다.

김 감독은 "지난 시즌 엘리자벳을 지명한 이유도 밝고 긍정적인 성격과 훌륭한 인성 때문이었다"며 "1순위가 안나오면 엘리자벳의 재지명까지 고려했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전남 선수 3명 브라질 청각장애인 올림픽 출전

육상 채경완·사격 김고운·창던지기 이미옥…다음달 1일 개막, 한국 종합 3위 목표

이미옥

채경완

김고운

전남장애인체육회 소속 선수 3명이 다음달 1일부터 브라질의 카시아스 두 술에서 열리는 2022 제24 하계 데플림픽(Deaflympics, 청각장애인올림픽)에 출전한다.

채경완(44)은 남자육상 100m, 200m, 400m 계주 종목에 참가한다. 김고운(48)은 여 10m 공기소총, 10m 공기소총 단체전, 여 50m 소총복사, 여 50m 소총복사 3자세 종목에 참가, 메달 사냥에 나선다.

이미옥(53)은 대한민국 최고령 선수로 육상 창던지기 종목에 출전한다. 이미옥은 전남장애인체육회의 기업취업연계프로그램을 통해 한전 KPS에 취업한 이후 경제적 안정과 꾸준한 훈련으로 지난해 전국장애인체전에서 3관왕을 차지한 바 있다. 이번 대회에서 메달이 기대되는 선수라고 전남장애인체육회는 전망했다.

한편 청각장애인올림픽대회는 농구, 축구, 핸드볼, 배구 등 4개 단체종목과 육상, 배드민턴, 비치발리볼, 사이클링 로드, 골프, 유도, 가라데, 산악자전거, 오리엔티어링, 사격, 수영, 탁구, 태권도, 테니스, 레슬링 등 16개 개인종목에서 선수들이 기량을 겨룬다. 대한민국 선수단은 8개 종목에 150명의 선수가 참가할 계획이다.

대한민국 선수단은 2017년 대회에서 금 18, 은 20, 동 14개를 획득, 종합 3위를 차지했다. 이번 대회에서도 종합 3위를 목표로 하고 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최냐, 연기냐

조직위, 개막 4개월여 남기고 명확한 지침 내리지 않아 혼란

오는 9월 10일 중국 항저우에서 막을 올리는 아시안게임이 예정대로 열릴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대회 개막을 136일 남긴 28일에도 항저우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는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산하 45개 국가올림픽위원회(NOC)에 대회 개최와 관련한 명확한 지침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직위는 대회를 예정대로 연다고만 강조할 뿐 가장 중요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규범을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선수단을 파견하는 대한체육회도 조직위의 지침을 못 받아 대회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항저우 아시안게임 조직위의 대처는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정점을 찍고 내림세로 돌아선 다른 나라들과 달리 중국에서는 뒤늦게 집단 감염이 퍼져 도시를 봉쇄하는 현재 상황과 맞물렸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중국의 경제수도 상하이는 이미 봉쇄 한 달째를 겪었고, 다른 도시로도 코로나19 감염이 확산 중이다. 항저우는 상하이에서 약 200㎞ 떨어진 지역이다.

AFP 통신은 23일 OCA 관계자를 인용해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연기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지만, 조직위는 이를 공개로 반박하거나 인정하진 않아 궁금증은 더욱 커간다.

체육회의 한 관계자는 "항저우 조직위가 '플레이북'(방역 규범집)을 안 보내줘 숙박·수송·항공권 계약 등을 아직 못했다"고 전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대회 조직위와 협의해 방역 규범을 담은 플레이북을 지난해 도쿄 하계올림픽과 올해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내놨다.

NOC와 각 나라 선수·지도자들은 이를 숙지하고 대회에 참가했다. 하지만 항저우 조직위는 대회를 넉 달 정도 남긴 시점까지 이를 발표조차 하지 않아 혼란을 키운다.

체육회는 5월 6일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열리는 OCA 집행위원회에서 아시안게임을 안건에 올려 예정대로 개최할 것인지 또는 연기할지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했다.

뚜렷한 결론이 나지 않는다면, 체육회는 대회를 여는 것으로 간주하고 각종 준비에 속도를 낼 참이다.

/연합뉴스

"우즈가 생각한 라이벌은 미컬슨 아닌 싱"

우즈 캐디 맡았던 윌리엄스 밝혀

타이거 우즈(미국)가 전성기에 가장 라이벌로 여긴 선수는 필 미컬슨(미국)이 아니라 비제이 싱(피지)이었다고 오랫동안 우즈의 캐디를 맡았던 스티브 윌리엄스가 밝혔다.

윌리엄스는 골프 메이저대회를 주제로 방송하는 팟캐스트에 출연해 "흔히 우즈는 미컬슨과 라이벌이라고들 알고 있지만, 진짜 라이벌은 싱이었다. 우즈와 싱은 정말로 서로 지기 싫어했다고 말했다고 28일(한국시간) 골프 먼스리가 전했다.

윌리엄스는 우즈가 따낸 메이저대회 우승 15승 가운데 13승을 도왔다. 우즈의 전성기를 함께 한 셈이다.

윌리엄스는 2006년 도이체 방크 챔피언십을 우즈가 얼마나 싱을 이기고 싶어했는지 말해주는 사례로 들었다.

우즈는 당시 싱과 최종 라운드 맞대결에서 8언더파 63타를 몰아쳐 5타를 줄인 싱에게 2타차 역전승을 거뒀다.

윌리엄스는 "최종 라운드 때 우즈는 필사적이었다. 전반 9개 홀에서 29타를 쳤다. 정말 믿기지 않는 승리욕의 사례"라고 말했다.

싱은 1998년부터 2004년까지 3차례 메이저대회를 제패했고, 특히 2004년에는 미국프로골프(PGA)투어에서 8승을 쓸어 담았다. 그는 2004년부터 2005년에 걸쳐 32주 동안 우즈를 밀어내고 세계랭킹 1위를 지켰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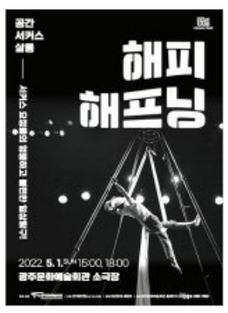
즐거운 문화산책

LOTTE CINEMA | 충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니 부모 얼굴이 보고 싶다
2관	봄날, 서울괴담
3관	봄날
4관	신비한 동물들과 덤블도어의 비밀
5관	니 부모 얼굴이 보고 싶다
6관	앵커
9관	공기살인
7관 씨네커플	쿠폰의 여왕, 앵커, 더 컨트랙터
8관 씨네커플	로스트 시티, 서울괴담, 달빛 그림자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GAC기획공연 포커스
해피 해프닝
일시 : 2022.05.01.(일)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613-8233

광주시립교향악단 어린이날 특별음악회
라바와 함께하는 키즈클래식
일시 : 2022.05.05.(목)~07.(토)
장소 : 광주 북구문화센터
문의 : 062-524-5086